

21세기 문화와 개혁 신앙: 플라톤의 동굴 비유

한 상 화

(아신대/조직신학)

1. 논지 요약

본 논문은 플라톤의 『국가론』 7권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기독교 신앙과 유사한 점들을 밝히고 더 나아가 기독교 개혁 신앙이 21세기 문화 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드러내고자 했다(1쪽). 그 역할이란 기독교 신앙인들이 21세기 미디어 문화 속에서 그릇된 세계관을 유포시키는 문화 제작자들과 맞서 개혁 신앙을 전파 해야 하는 사명을 의미하는데(15쪽), 이는 마치 플라톤에게 있어서 동굴 밖의 세상을 본 자들이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와 동굴 안에 갇힌 자들을 “설득”하며 지속적인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지식과 실천의 합일을 추구하는 플라톤의 학문관이야말로 진리가 자유를 주는 개혁 신앙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 주는 학문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장점

본 연구의 장점은 단순한 플라톤 철학의 연구가 아니라 기독교 개혁 신앙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혁 신앙의 21세기 문화적 역할에 대한 관심사와 함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엿볼 수 있는 플라톤 철학의 여러 면모들과 기독교 사상과 대비시켜 보는 분석과 시도는 연구자 자신의 독창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본 논문의 백미였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의 위치와 대비시켜 보는 기독교의 신에 대한 논의(2쪽), 동굴 밖의 세계와 동굴 안의 세계와의 유비 관계를 인식 하면서 기독교 선교와의 연관성을 밝혀보는 시도(5-6, 8쪽), 플라톤의 학문관과

기독교의 지식관의 정합성(13쪽) 등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이 논문의 연구 의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요 논지인 플라톤의 지식관은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사이의 거리감이 없이 선의 이데아라는 하나의 원리 밑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된다는 주장과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다른 자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주지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진리의 포괄적인 성격에 가깝다는 주장은 일관성 있게 제시된 것 같다.

3. 비평 및 질문

대개 한 사물이나 인격의 장점들은 동시에 곧 단점들이 되곤 한다.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상기한 바, 동굴의 비유에 나타난 플라톤 철학의 여러 면모들과 기독교 신앙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장점이면서도 너무나 유사성의 측면에 치우쳐 논의되는 것 같다. 논평자의 견해로는, 기독교 신앙 체계는 다른 사상 체계들과 항상 어떤 형태적인 병행성을(formal parallel) 보일 수 있으며 때로 그것은 깊은 유사성일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하다고(fundamental difference, or presuppositional difference) 믿고 있다. 플라톤의 경우에도 저자가 논하는 유사성의 측면이 상당히 형태적인 부분에 -저자는 모상이라고 표현한 것 같음-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앞에 말한 각 부분에 대해, 저자가 플라톤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 주려한 것이 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단지 둘 사이에 보다 근본적이고도 내용적인 차이점들에 대한 언급이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에 대해 기독교의 신의 위치와 대비시켜 해석한 사람들을 인용하며 양립 가능성 정도로 언급하고 자신의 별다른 평가없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기독교의 신 개념과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두 세계관 속에 위치하고 있기에 내용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면 한다. 즉, 기독교의 신은 그야말로 만물을 무로부터의 창조한 창조자로서 -형상, 질료, 조성자, 목적인을 모두 포괄하는 스스로 있는 자(Causa sui)로서- 세계의 실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실재이나,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존재하는 것들이 이미 상정된 상태에서 그것의 본질들을 밝혀 주는 진리의 빛과 같은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존재(형상의 세계)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중요한 논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플라톤의 지식관이 “진리가 자유를 주는 개혁 신앙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든지” 또는 “지식과 실천을 함께 보는 학문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애매한 표현 대신에 어떤 종류의 유사성이 있으며, 또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밝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지식의 근거를 선험(종음)에 두면서 존재와 당위를 하나의 원리로 풀어 가려했던 플라톤의 지식관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그를 통해서만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진리관과는 그 내용상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은가?(요 8:31ff과 14:6ff를 참조)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지식관에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친밀한 앎이 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에는 인격적인 개념이 있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제시하는 실재 세계에 대한 지식은 초대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영지주의의 한 형태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물론 초대 교회 때의 영지주의는 보다 더 대중화되고 혼합적이고 신비적인 신화들이 곁들여진 점에서 플라톤의 사상과는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그 핵심에 있어서 영적인 지식을(gnosis) 획득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상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진리와는 크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한 지식의 -그것이 윤리적이고(실천적 지식), 영적인 지식으로서 포괄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영역을 넘어서 믿는 자들의 실재적 변화를 포함한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의 상태의 변화(status)와 믿는 자들의 내적 본성의 변화(nature)가 모두 포함되어지는 보다 더 존재론적인 개념이다. 물론 이 논문은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대비되는 동굴의 비유와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개념이 위의 문제 의식을 필연적으로 갖게 한다. 즉, 동굴의 비유가 말하는 플라톤의 실재에 대한 지식과 기독교 신앙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간과되어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지식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인간 이성의 중생이(palingenesis) 반드시 우선해야 하고, 중생 한 이성과 중생하지 못한 이성과는 절대적인 불연속성이(absolute antithesis) 있다고 보는 개혁주의 인식론의 원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되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자의 성경 인용이다. 특히 로마서 1:18-22의 말씀을 여행길의 연속성을 설명하면서 동굴의 안과 밖이 유비의 관계에 있으며 오직 인식의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인용하는데, 이는 성경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다. 이 구절은 통상적으로 자연 계시의 불충분성을 설명하느라고 인용되는 구절이나 자세히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 계시

가 오히려 정죄하는 기능을 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하는 구절이다. 즉, 인간 안에 자연 계시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불연속성, 즉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간의 전적타락을 말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실재에 대한 지식과 기독교의 진리관은 본질상 차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초대 교부 신앙도 아닌 기독교 개혁 신앙(!)이 21세기 문화 속에서 감당할 역할을 이끌어낸다는 문제 정립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이 논문의 서두에서 저자가 제기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즉,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서로 상관이 없는가? 철학은 전혀 기독교 신앙에 공헌할 것이 없는가? 이 문제는 이성과 계시(신앙)의 문제와 함께 전 신학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물어져 온 근본적인 문제이며 간단히 답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둘 사이의 유비적 관계나 조화의 관계를 상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개혁 전통의 범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기독교 철학은 무엇인가? 적어도 개혁주의 전통의 기독교 철학은 성경에서 출발하여 내재 철학들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이베르트가 칸트의 이론적 지식에 대한 선험적 비판의 물음을 새로운 차원으로서는 종교적인 물음을 가지고 다시 정립하듯이, 또한 반틸이 성경에 입각하여, 즉 기독교 유신론적 신앙체계 전체가 전제된 실재관과 인식론, 윤리학을 전개하듯이,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은 성경과 신학에서 출발하여 내재 철학이 제기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대해 사소한 질문들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왜 저자는 선의 이데아라고 통상적으로 번역되는 개념을 “좋은 이데아”라고 했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둘째, 플라톤이 말하는 지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 일반적인 통념을 가리키는 저급한 지식인 *doxa*와 실재에 대한 지식, 즉 예지라고 통상적으로 번역이 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인 *episteme*, 그리고 이론적 지식을 실천의 영역에 적용하는 매개적인 지식인 *phronesis*, 또한 영적인 지식인 *gnosis*도 있을 수 있겠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본 논문은 논지상 플라톤의 *phronesis*을 많이 강조하는 듯 보이는데 이것과 *episteme*가 동굴의 비유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셋째, 2쪽에 언급된 “라틴 계열의 중세 신학자들이 … 플라톤 철학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물리쳤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가? 그 부분에 각주가 필요하다.